

고대 유다교 전통에 비추어 본 갈라 3,10-14*

김상우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성서신학 교수

들어가는 말

1. 갈라 3,10-14에 관한 선행연구

2. 고대 유다교 전통에 따른 레위 18,5; 신명 21,23; 27,26;

하바 2,4

2.1 율법과 계약

2.2 축복과 저주

2.3 우상 숭배와 죄악

2.4 땅과 상속 재산

3. 갈라 3,10-14의 논증 과정에 적용

나가는 말

* 이 글은 202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 작성된 논문임.

들어가는 말

신약성경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활용한다.¹⁾ 제1 바오로 서간에서도 성경에 근거한 논증이 발견되는데, 그는 구약 본문을 직접 인용(引用)하거나 부분 차용(借用)하거나 간접적으로 암시(暗示)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갈라티아의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 및 긴장 관계를 배경으로 집필된 갈라티아서²⁾에서 바오로는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본고는 갈라 3,10-14³⁾을 연구 본문으로 설정하며, 바오로의 해석학적 자율성-유연성-독창성을 전제한다. 우선 해당 본문에서 바오로는 구약성경을 어떤 신학적 지평에서 재해석했는지, 그의 해석학적 고찰이 고대 유다교 전통과 어떤 점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갖는지 통시적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 본문 속 바오로의 논증이 갈라티

1)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R.B.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D. Marguerat - A. Curtis, *Intertextualités: La Bible en échos*, (Genève: Labor et Fides, 2000); G.T. Manning, *Echoes of a prophet: the Use of John and Literature of the Second Temple Period*, (London: T&T Clark, 2004); B.J. Abasciano, *Paul's Use of the Old Testament in Romans 9.1-9: An Intertextual and Theological Exegesis*, (London: T&T Clark, 2005); K.D. Litwak, *Echoes of Scripture in Luke-Acts: Telling the History of God's People intertextually*, (London: T&T Clark, 2005); A.H. Leroy, *The New Isaac: Tradition and Intertextuality in the Gospel of Matthew*, (Leiden: Brill, 2009); C.A. Evans, *Early Christian Literature and Intertextuality*, (London: T&T Clark, 2009), vol. I-II; G. Dahan, ed., “Réécrire les saintes Écritures”, *Cahiers Évangile, Suppl.*, 158(2011, décembre); C.A. Evans, *Searching the Scripture: Studies in Context and Intertextuality*, (London: Bloomsbury, 2015); Y. Lee, *Paul, Scribe of Old and New: Intertextual Insights for the Jesus-Paul Debate*, (London: Bloomsbury, 2015); R.B.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Gospels*,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6); S. Smith, *The Fate of the Jerusalem Temple in Luke-Acts: An Intertextual Approach to Jesus' Laments over Jerusalem and Stephen's Speech*, (London: Bloomsbury, 2017); G.F. William, *The Influence of Ezekiel in the Fourth Gospel: Intertextuality and Interpretation*, (Leiden: Brill, 2018).

2) 갈라티아서의 집필 배경과 관련하여: 갈라 1,6; 2,4-5; 3,1; 6,13.

3)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주석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1판, 1쇄), 701-702. 갈라 3,10-14: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신명 27,26)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하바 2,4)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레위 18,5) 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신명 21,23)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인들에게 가져다줄 수사학적 효과를 밝힐 것이다.

1. 갈라 3,10-14에 관한 선행연구

갈라 3,10-14에서 레위 18,5; 신명 21,23; 27,26; 하바 2,4이 바오로의 논증 과정에서 활용되었다는 점에 많은 학자가 동의한다.⁴⁾ 그러나 ‘바오로가 구약성경 본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조금씩 다른 답변과 가설을 제시한다.

첫 번째, 연구 본문에서 바오로가 서로 다른 구약 본문들을 연결하는 방식이 라빠들의 성서 해석 방법 가운데 하나인 ‘계제라 사와’ (סודא סודא) 방식이라는 가설이다. 이 가설을 대표하는 하스뚜앙(M. Rastoin)은 로젠블라트(S. Rosenblatt), 리버만(S. Lieberman), 자이틀린(S. Zeitlin), 타우너(W. Towner), 웨르닉(M. Chernick)의 연구⁵⁾에 기반을 둔다. 그는

4) R.N. Longenecker, *Galatians*, (Dallas: Word Book Publisher, 1990), 152; J.D.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3), 170; J.M. Scott, “‘For as Many as are of Works of the Law are under a Curse’ (Ga 3,10)”, in *Paul and the Scripture of Israel*, ed., C.A. Evans - J.A. Sanders, (Sheffield: JSOT Press, 1993), 205-228; A. Pitta, *La lettera ai Galati*, (Bologna: EDB, 1996), 183-186; J.L. Martyn, *Galatians*,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7), 307-324; B. Witherington III, *Grace in Galatia: A Commentary on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Grand Rapids: W.B. Eerdmans, 1998), 231-240; S. Légasse, *L'épître de Paul aux Galates*, (Paris: Cerf, 2000), 227-237; A.A. Das, “Galatians 3:10. The Necessity of Perfect Obedience”, in *Paul, the Law, and the Covenant*, ed., A.A. Da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1), 145-170; M. Rastoin, *Tarse et Jérusalem: La double culture de l'Apôtre Paul en Ga 3,6-4,7*, (Rome: Institut Biblique Pontifical, 2003), 111-125; J.-P. Lémonon, “Loi-Écriture, Loi-Prescription, Loi-Agapè”, in *Paul, une théologie en construction*, ed., A. Dettwiler - J.-D. Kaestli - D. Marguerat, (Genève: Labor et Fides, 2004), 281; M. Bachmann, “Zur Argumentation von Galater 3.10-12”, *New Testament Studies*, 53(2007), 524-544; J.-P. Lémonon, *L'épître aux Galates*, (Paris: Cerf, 2008), 120-126; D. Marguerat, “L'évangile paulinien de la justification par la foi”, in *Paul et l'unité des chrétiens*, ed., J. Schlosser, (Louvain: Peeters, 2010), 41-48; M.C. de Boer, *Galatian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197-216; J.-L. Aletti, “L'argumentation de Ga 3,10-14, une fois encore. Difficultés et propositions”, *Biblica*, 92(2011, 2), 182-203; D.J. Moo, *Galatia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201-223; R.E. Ciampa, “Composite Citations in 1-2 Corinthians and Galatians”, in *Composite Citations in Antiquity*, ed., S.A. Adams - S.M. Ehorn, (London: T&T Clark, 2018), 182-185; C.S. Keener, *Galati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130-143.

5) S. Rosenblatt,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in the Mishna*, (Baltimore: John Hopkins Press, 1935), 28-29; S. Lieberman, “Rabbinic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n *Hellenism in Jewish Palestine: Studies in the Literary Transmission of Beliefs and Manners of Palestine in the 1 Century BCE - IV Century CE*, ed., S. Lieberman,, (New York: JT Seminary, 1950), 47-82; S.

먼저 ‘협의적 계제라 사와’와 ‘광의적 계제라 사와’를 구분한 뒤, 갈라 3,10-13이 타나임 시대와 아모라임 시대의 ‘계제라 사와’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그 결과, 해당 본문이 ‘협의적 계제라 사와’에도, ‘광의적 계제라 사와’에도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소결론에 이른다.⁶⁾ 그럼에도 힐렐의 일곱 가지 성서 해석 규칙이 알려지기 이전부터 이미 이 방법론들은 구약성경을 포함하는 고대 유다교 전통 안에 원형처럼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엘카임-사르트르(A. Elkaim-Sartre)와 피쉬반(M. Fishbane)의 주장⁷⁾을 논거로 들며, 하스뚜앙은 다음 가설을 세운다. “피쉬반이 히브리어 성경의 최종 편집 단계에서 라삐 이전의 다른 성서 해석 방법들을 부각한 것은 이 방법론들이 오래되었으며 바오로 시대에 이미 널리 퍼져 보편화 되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이 점에 관해 절대적 확신에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성경 저자들이 토라의 법률적 부분에 사용된 어휘에 매우 민감했고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미 계제라 사와 같이 의미론적 유비에 바탕을 둔 추론을 실행했을 것이라는 점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⁸⁾

한편 레모농(J.-P. Lémonon)과 키너(C.S. Keener) 모두 특별한 논거 제시나 비판 없이 ‘계제라 사와’ 가설을 따른다.⁹⁾ 그런데 바오로의 해석학적 자율성·고유성·창의성이 반드시 ‘라삐 이전 성서 해석 방법’이라는 특수하고 한정된 틀로 축소되어야 할까? 하스뚜앙의 가설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불확실한 가설 위에 또 다른 가설을 쌓는다는 점에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갈라 3,10-14의 구약 본문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미시적·지엽적·주관적, 즉 협의적 특정 성서 해석 방법을 연구 본문에 적용하기보다, 다양한 구약 정경과 외경을 중심으로 좀 더 거시적·체계적·객관적, 즉 광의적 차원에서의 검토를 요청한다.

두 번째, ‘거울 읽기’(mirror-reading)를 통해 갈라티아 공동체에 개입했던 바오로의 적

Zeitlin, “Hillel and the Hermeneutic Rules”, *The Jewish Quarterly Review*, 54(1963, 2), 161-173; W.S. Towner, “Hermeneutical Systems of Hillel and the Tannaim: A Fresh Look”, *Hebrew Union College Annual*, 53(1982), 101-135; M. Chernick, “Internal Restraints on Gezerah Shawah’s Application”, *The Jewish Quarterly Review*, 80(1990, 3-4), 253-282.

6) Rastoin, *Tarse et Jérusalem*, 119.

7) A. Elkaim-Sartre, ed., *Aggadoth du Talmud de Babylone, La source du Jacob: El Yaakov*, (Paris: Verdier, 1982), 24; M.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6), 250. n. 50, 425, n. 13, 526, n. 2.

8) Rastoin, *Tarse et Jérusalem*, 131-132.

9) Lémonon, *L’épître aux Galates*, 125; Keener, *Galatians*, 131.136.

대지들에 대한 신원과 그들의 주장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바클레이(J.M.G. Barclay)¹⁰⁾가 처음으로 ‘거울 읽기’ 개념을 이 편지에 적용했지만, 하워드(G. Howard)¹¹⁾, 롱에네커(R.N. Longenecker)¹²⁾, 마르틴(J.L. Martyn), 드 보어(M.C. de Boer)¹³⁾도 이 가설에 동조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물론 바클레이가 갈라 3,10-14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연구 본문을 포함하는 갈라 3,6-29; 4,21-31 전체에 ‘거울 읽기’를 적용한다.¹⁴⁾ 요약하면, 갈라 3,10-14 속 구약 본문들은 적대자들이 먼저 사용했을 것이고 바오로가 그들의 ‘공격’에 직접 응답한다는 것이 본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권연경¹⁵⁾은 ‘거울 읽기’ 가설이 배제할 수 없는 내재적 주관성·단순함·불확실성을 지닌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갈라티아서를 근거로 적대자들의 윤곽(輪廓)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여러 오류를 품는다. 해당 편지 속 바오로의 논증적·신학적·수사학적 발언이 과거의 역사적 현실을 온전히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낙관(樂觀)하기 어려우며, 그의 해석을 과장하거나 상상을 덧붙여 이해한다면 수신자 교회를 향한 바오로의 실제 발화 상황을 왜곡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갈라티아서는 바오로가 적대자들에게 직접 응수하기 위해 쓴 편지가 아니며, 일차적 수신자인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집필되었다. 이처럼 이 편지에 ‘거울 읽기’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의 축소·왜곡과 객관성 결여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다. 아울러 권연경¹⁶⁾은 갈라 3,10과 5,3 사이의 모순된 해석(바클레이¹⁷⁾, 롱에네커¹⁸⁾, 마르틴¹⁹⁾)도 지적하는데, ‘거울

10) J.M.G. Barclay, “Mirror-Reading a Polemical Letter: Galatians as a Test Cas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1(1987), 83; 또한 다음의 단행본에도 실려 있음: M.D. Nanos, ed., *The Galatians Debate: Contemporary Issues in Rhetorical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Peabody: Hendrickson, 2002), 367-382. 그는 다음의 저서를 통해 가설을 강화한다: J.M.G. Barclay, *Obedying the Truth: A Study of Paul's Ethics in Galatians*, (Edinburgh: T&T Clark, 1988).

11) G. Howard, *Paul: Crisis in Galat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9-11. ‘물론 이 저서는 ‘거울 읽기’ 개념을 처음 적용한 바클레이의 것보다 먼저 출간되었다. 하지만 하워드 역시 바클레이가 제기한 가설과 결을 같이 하는 해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Longenecker, *Galatians*, 146, 149.

13) De Boer, *Galatians*, 200.

14) Barclay, “Mirror-Reading”, 379: “바오로의 답변 속에서 다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적대자들의 다른 논증이 성경,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아브라함에 관한 바오로의 반복적인 언급(3,6-29; 4,21-31)은...”

15) Y.-G. Kwon, *Eschatology in Galatians: Rethinking Paul's Response to the Crisis in Galatia*, (Tübingen: J.C.B. Mohr, 2004); 「Reconsidering Mirror-Reading and Galatians」, 『신약연구』, 14(2015, 2), 244-270.

16) Kwon, *Eschatology in Galatians*, 210-211, n. 129.

읽기' 가설이 수반하는 일관성의 결여 때문에 이 평가는 합리적이며 타당하다.

세 번째, 갈라 3,10-14에 나타나는 구약 본문들 사이의 신학적 흐름과 해석학적 일관성이 과소평가 되는 연구 동향이 발견된다. 거의 모든 주석가들은 갈라티아서를 각각의 절에 따라 주석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다.²⁰⁾ 부연하면, 연구 본문 자체를 주석하기에 앞서 그것이 구약 본문들과 맺고 있는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뜻이다. 그 결과, 갈라 3,10-14의 논증 과정에서 바오로가 전제했을 고대 유다교 전통에 관한 해석학적 이해를 충분히 심화시키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만 성경 본문을 다루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는 해당 주제를 다방면으로 분석하는 정기 간행물이 꾸준히 출간되는 이유이기도 하다.²¹⁾ 그러면

17) Barclay, *Obedying the Truth*, 64-67.

18) Longenecker, *Galatians*, 146에서 갈라 3,10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신명 27,26]을 결정적인 것으로 인용했다.”; 227에서 갈라 5,3에 대해 “여기서 바오로가 할례는 모세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지키도록 의무화한다고 지적인 사실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라는 모순된 해석이 발견된다.

19) Martyn, *Galatians*, 309: “현재 구절[갈라 3,10]에서 바오로는 신명 27,26을...자구적 의미와 정반대 방법으로 해석한다. 그는 이 본문을 완전히 뒤집어 생각하게 하려고 본문을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그의 관심사는 [적대자인 율법] 교사들의 본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20) 참조 Ibid., 328-334. 예외적으로 마르틴은 주석서에서 구약 본문들 사이의 관계를 ‘부록’에서 따로 설명하려 시도하지만, 해당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한다.

21) 갈라 3,10-14과 레위 18,5; 신명 21,23; 27,26; 하바 2,4 사이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D. Garlington, “Role Reversal and Paul’s Use of Scripture in Galatians 3.10-13”,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65(1997), 85-121; N.H. Young, “Who’s Cursed-And Why? (Galatians 3:10-14)”,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7(1998, 1), 79-92; M. Silva, “Abarham, and Works: Paul’s Use of Scripture in Galatians 3:6-14”,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3(2001), 251-267; J. Willits, “Context Matters: Paul’s Use of Leviticus 18:5 in Galatians 3:12”, *Tyndale Bulletin*, 54(2003, 2), 105-122; R.E. Ciampa, “Deuteronomy in Galatians and Romans”, in *Deuteronomy in the New Testament*, ed., M.J.J. Menken - S. Moyise, (London: T&T Clark, 2007), 99-117; C. Zoccali, “What’s the Problem with the Law? Jews, Gentiles, and Covenant Identity in Galatians 3:10-12”, *Neotestamentica*, 49(2015, 2), 377-415; D. Hunn, “Galatians 3.10-12: Assumptions and Argumenta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7(2015, 3), 253-266; D. Hunn, “Galatians 3:13-14: Mere Assertio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80(2018), 141-157; A.M. Lupo, “God’s Curse in the Hanged Man: Crux interpretum in Deut 21:23”, *Studia Biblica Slovaca*, 10(2018, 1), 40-59; Y. Namgung, “What Isaiah Has to Say about the Curse of the Law in Galatians 3:10”, *Neotestamentica*, 52(2018, 1), 69-90; E. Jodar, “Leviticus 18:5 and the Law’s Call to Faith: A Positive Reassessment of Paul’s View of the Law”, *Themelios*, 45(2020, 1), 43-57; J.A. Cowan, “The Curse of the Law, the Covenant, and Anthropology in Galatians 3:10-14: An Examination of Paul’s Use of Deuteronomy 27:26”,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9(2020, 1), 211-229; J.S. DeRouchie, “The Use of Leviticus 18:5 in Galatians 3:12: A Redemptive-Historical Reassessment”, *Themelios*, 45(2020, 2), 240-259; P.J.

이 주석학적 경향은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까?

바오로는 유다교 전통의 유산 속에서 바리사이로 살았었지만²²⁾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여²³⁾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레위 18,5; 신명 21,23; 27,26; 하바 2,4을 중심으로 고대 유다교 전통에서 일관된 신학적 흐름이 발견되는지, 이 흐름 가운데 바오로는 해석학적으로 어떤 요소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따라서 해당 구약 정경뿐만 아니라 타르굼이나 사해 문헌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유다교 전통의 ‘뒷배경’에서 갈라 3,10-14을 조망(眺望)함으로써 제2 성전 시대 유다교 전통의 해석과 바오로의 해석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밝히는 것, 그가 논증 과정에서 어떤 신학적 지평을 견지하며 어떤 신학적 요소를 도출하는지 입증하는 것을 본 논문의 방법론으로 삼는다.

2. 고대 유다교 전통에 따른 레위 18,5; 신명 21,23; 27,26; 하바 2,4

갈라 3,10-14에 관한 선행연구는 본고의 방법론을 구체화 시켰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대 유다교 전통이 일관성 있게 증언하는 신학적 주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위해 ‘율법과 계약’, ‘축복과 저주’, ‘우상 숭배와 죄악’, ‘땅과 상속 재산’이라는 주제별 흐름에 맞추어 파노라마 형식으로 관련 문헌들을 읽어보자.

2.1. 율법과 계약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계명·법규·규칙을 준수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레위 18,4뿐 아니라 구약 정경에 걸쳐 반복된다. 느헤 9,29에 의하면, 율법을 어기고 하느님의 계명·법규를 거스르는 것은 ‘죄’로 묘사된다. ‘율법’에 대한 불충실이 죄로 규정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에 대한 그들의 불충실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구약 정경은 ‘율법과 계약’을 상호관계성 안에서 이해한다. 그

Bekken, *Paul's Negotiation of Abraham in Galatians 3 in the Jewish Context*, (Berlin: De Gruyter, 2021), 183-204.

22) 참조. 갈라 1,14; 필리 3,5-6.

23) 참조. 사도 9,3-6; 22,6-10; 26,12-18.

라면 타르굼 전통²⁴⁾은 무엇을 증언하는가?

“그 예언은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 이는 율법서 안에서 읽는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타르굼』 하바 2,2)²⁵⁾

『타르굼』 하바 2,2은 히브리어 구약성경 본문을 재해석과 함께 아람어로 옮기는데, ‘환시’는 ‘예언’으로, ‘판’은 ‘율법서’로 고친다.

“나는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약을 기록한 돌 판을 너에게 주겠다.”(『타르굼 네오피티』 탈출 24,12)²⁶⁾

마찬가지로 『타르굼 네오피티』는 구약 정경(탈출 24,12)의 ‘계약’이라는 어휘를 ‘계약’으로 바꾸는데, 여기서 ‘율법’은 ‘계약’과 동의어로 파악된다. 이처럼 타르굼 전통은 ‘율법’과 ‘계약’을 긴밀히 연결할 뿐만 아니라 두 요소를 동일시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유다 집안에서 율법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정의의 스승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고난으로 인해 하느님께서 심판의 집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하바룩 주석서』 8,1-3).²⁷⁾

『하바룩 주석서』 8,1은 ‘율법’을 준수하는 쿰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관한 이야기를 도입하고, 8,2-3은 ‘정의의 스승에 대한 믿음’ 덕분에 그들이 해방될 것이라는 종말론을 설파(說破)한다.²⁸⁾ 이처럼 『하바룩 주석서』는 ‘율법’ 준수와 더불어 ‘정의의 스승에 대한 믿음’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요청한다.

24) 타르굼 전통의 유래와 분류, 특징에 관하여: C. Tassin, “Vous avez dit ‘Targoum’?”, *Transversalités*, 106(2008, 2), 133-163.

25) 참조. *The Targum of the Minor Prophets*, The Aramaic Bible the Targum 14, trans. K.J. Cathcart - R.P. Gordon, (Edinburgh: T&T Clark, 1989), 150-151.

26) 참조. *Targum du Pentateuque*, II, SC 256, trans. R. Le Déaut, (Paris: Cerf, 1979), 202.

27) 참조. Th. Legrand, ““Son interprétation concerne tous ceux qui pratiquent la Torah...”: Relecture et interprétation d’Habacuc 2,4 dans le Pesher d’Habacuc (1QpHab VII-VIII) et le Targum d’Habacuc”, in *«Le juste vivra de sa foi» (Habacuc 2,4)*, ed., M. Arnold - G. Dahan - A. Noblesse-Rocher, (Paris: Cerf, 2012), 18.

28) R.P. Gordon, *Studies in the Targum to the Twelve Prophets: From Nahum to Malachi*, (Leiden: E.J. Brill, 1994), 87. 고든에 의하면, 1QpHab 8,2-3은 구약 정경 하바 2,4에 대한 주석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약 정경 본문과 비교했을 때, ‘정의의 스승’에게 부여된 권한·지위·역할이 쿰란 문헌의 고유한 색채이다. 한편 하바 2,4은 연구 본문 중 갈라 3,11에서 사용된다.

하느님의 계명에 충실한 이들, 남은 자들과 함께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는데, 감추어진 것들을 그들에게 계시하셨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벗어났었다...그분의 기록한 안식일과 영광스런 축제들, 올바른 규정과 진리의 길, 그분 뜻에 대한 열망, 사람이 살기 위해 행해야 하는 것들이다(『다마스쿠스 문서』 3,12-16).²⁹⁾

『다마스쿠스 문서』 3,12-16은 ‘율법과 계약’의 관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하느님의 계명에 충실한 이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남은 자들’이라고 종말론적으로 규정된다. 하느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감추어진 것들을 그들에게 계시’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의 길에서 벗어났으며 콤란 공동체만이 ‘율법’ 준수에 충실하였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영원한 ‘계약’ 안에 머물게 된다는 해석이다. 『다마스쿠스 문서』의 증언은 입회자가 지켜야 할 규칙을 명기(明記)하는 『공동체 규칙서』에 의해 재확인된다. 이 문헌은 그들을 ‘계약 안에 들어오는 이들’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계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말할 것이다. “아멘, 아멘!”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말할 것이다. “...이 계약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제 마음속으로 자신을 부추기며 말할 것이다...” 그러면 계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뒤이어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아멘, 아멘!”(『공동체 규칙서』 2,10-11.13.18)³⁰⁾

제2 성전 시대 유다교 문헌들에서 ‘율법과 계약’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일시하는 해석도 발견된다. 구약 정경과 외경의 증언들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시나이 ‘계약’의 유효성이 ‘율법’ 준수는 조건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이다. 만일 ‘계약’ 안에 머물기 위해 ‘율법’ 실천에 충실하다면 축복을 받겠지만, 반대로 ‘율법’을 거스른다면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배신하는 것이므로 ‘계약’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해석,³¹⁾ 곧 ‘율법주의적 해석’으로 수

29) 참조. “Écrit de Damas”, trans. A. Dupont-Sommer, in A. Dupont-Sommer - M. Philonenko, ed., *La Bible. Écrits intertestamentaires*, (Paris: Gallimard, 1987), 148; 채인용. 송창현, 「『다마스쿠스 문서』 2: CD I 1-IV 12 본문 번역과 주석」, 『말씀터』, 132 (2020, 9-10월), 14-15.

30) 참조. “Règle de la Communauté”, trans. A. Dupont-Sommer, in A. Dupont-Sommer - M. Philonenko, ed., *La Bible. Écrits intertestamentaires*, 12-13; 채인용. 송창현, 「콤란의 ‘공동체 규칙서’ 2: 본문 번역과 주석」, 『말씀터』, 52 (2007, 5-6월), 9; 「콤란의 ‘공동체 규칙서’ 3: 본문 번역과 주석」, 『말씀터』, 53 (2007, 7-8월), 7.

31) Moo, *Galatians*, 201-203; Légasse, *Galates*, 228; Keener, *Galatians*, 132.134.139.

렴(收斂)된다.

논증 결과를 연구 본문에 적용해보자. 갈라티아서에서 ‘율법’이라는 뜻의 νόμος는 32회³²⁾, ‘계약’으로 번역 가능한 διαθήκη는 3회 등장한다. 물론 διαθήκη는 갈라 3,10-14에서 직접 사용되지 않지만, 3,15.17; 4,24에서 διαθήκη 개념은 바오로의 논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처럼 어휘의 용례만 보더라도 유다교 전통이 동일시했던 ‘율법과 계약’이라는 주제가 연구 본문 기저(基底)에, 즉 바오로의 해석학 속에 전제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그의 논증과 유다교 전통 사이에 연속성만 발견되는가? 먼저 3,10의 도입 내용은 구약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³³⁾ 구약 정경과 외경에서 ‘율법’ 실천이 ‘계약’ 안에 머물기 위한 전제조건처럼 제시되었다면, 3,10은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역설하기 때문이다. 또한 3,13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저주가 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과 3,14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짐’처럼 유다교 문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창적 해석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갈라 3,10-14의 논증 과정에서 바오로의 해석학적 고찰은 ‘율법과 계약’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도, ‘축복과 저주’라는 주제로 넘어간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2.2. 축복과 저주

바오로의 해석학적 관점을 견지하며 ‘율법과 계약’이라는 주제가 ‘축복과 저주’라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갈라 3,10.13을 살펴보자. 갈라 3,10은 신명 27,26 본문(LXX, BHS)과,³⁴⁾ 갈라 3,13은 신명 21,23 본문과³⁵⁾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데, 특별한 신학적 의도로 성경 본문이 차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³⁶⁾ 바오로는 어

32) 갈라 2,16^{*3}.19^{*2}.21; 3,2.5.10^{*2}.11.12.13.17.18.19.21^{*3}.23.24; 4,4.5.21^{*2}; 5,3.4.14.18.23; 6,2.13.

33) Lémonon, *Galates*, 120.

34) 갈라 3,10: ἐπικατάρατος πᾶς ὃς οὐκ ἐμμένει πᾶσιν τοῖς γεγραμμένοις ἐν τῷ βιβλίῳ τοῦ νόμου τοῦ ποιῆσαι αὐτά.

신명 27,26: ἐπικατάρατος πᾶς ἄνθρωπος ὃς οὐκ ἐμμένει ἐν πᾶσιν τοῖς λόγοις τοῦ νόμου τούτου τοῦ ποιῆσαι αὐτούς (LXX); (BHS) עֲרִיק מִכָּל הַדְּבָרִים הַנִּכְתָּבִים בְּסֵפֶר הַבְּרִית וְלֹא יַעֲשֶׂה אֹתָם

35) 갈라 3,13: ἐπικατάρατος πᾶς ὁ κρεμάμενος ἐπὶ ξύλου,

신명 21,23: ὅτι κεκατηραμένος ὑπὸ θεοῦ πᾶς κρεμάμενος ἐπὶ ξύλου (LXX); (BHS) וְלֹא יִהְיֶה מְרֻכָּס עַל עֵץ

36) 바오로가 참조하거나 활용했을 구약성경 그리스어 번역본이 칠십인역이 아닐 수 있다는 가설은 본고의 연구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추후 다른 연구들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다. 해당 주제에 관하여: Witherington III, *Grace in Galatia*, 232.

면 신학적 전망에서 구약 본문을 재해석했을까?

구약 정경 가운데 신명 27,14-26은 열두 가지 ‘저주’를 장엄하게 선포한다. 모세와 레위인 사제들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할 이 ‘저주’ 목록은 ‘율법’에 토대를 둔다.³⁷⁾ 한편 예레 11,3-4은 하느님 백성이 ‘율법’과 맺는 관계에 따라 ‘저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 본문은 공통점을 지닌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다. 축복하는 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짐 산을 향해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실천하는 자는 복되다!” 저주하는 자들은 에발 산을 향해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실천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타르굼 차명-요나탄』 신명 27,26)³⁸⁾

구약 정경(신명 27,26)과 비교할 때 타르굼은 재해석을 덧붙인다. ‘율법’ 실천과 ‘저주’만을 언급했던 정경 본문의 예언이 『타르굼 차명-요나탄』에 의하면 각각 그리짐 산을 ‘축복’과, 에발 산을 ‘저주’와 함께 엮는 방식으로 설명이 보충된다.³⁹⁾

사제들은 그분의 모든 길을 완전히 걷는 하느님의 뭇의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말할 것이다. “그분이 모든 선으로 너를 축복하시기를…” 레위인들은 벨리아르에게 뭇으로 주어진 모든 이들을 저주할 것이다. “너의 잘못된 행동들로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이다…너에게 무자비한 저주가 있을지이다…” 축복하고 저주하는 이들에 뒤이어 꺾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말할 것이다. “아멘, 아멘!”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말할 것이다. “마음에 우상을 섬기면서 꺾약 안으로 들어오는 이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공동체 규칙서』 2,2.4-5.7.10-12).⁴⁰⁾

이 콤란 문헌은 먼저 ‘하느님의 뭇의 모든 이들’과 ‘벨리아르에게 뭇으로 주어진 모든 이들’을 구분하며 전자에게는 ‘축복’을, 후자에게는 ‘저주’를 예고한다. 더구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꺾약’ 안으로 들어오려는 입회자에게 ‘저주’가 선포된다.

위에서 살펴본 ‘축복과 저주’에 관한 증언들은 갈라 3,10의 신학적-해석학적 배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갖는다. 그러면 3,13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유다교 전통에 비

37) 특히 신명 27,26: “‘이 율법의 말씀들을 존중하여 실천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38) 참조 *Targum du Pentateuque*, IV, SC 271, trans. R. Le Déaut, (Paris: Cerf, 1980), 219.

39) 한편 구약 정경 신명 11,29도 그리짐 산과 ‘축복’을, 에발 산과 ‘저주’를 연결한다.

40) 참조 “Règle de la Communauté”, 12-13; 재인용: 송창현, 「콤란의 ‘공동체 규칙서’ 2」, 9; 「콤란의 ‘공동체 규칙서’ 3」, 7.

추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갈라 3,13에서 바오로가 차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명 21,23(“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 진술은 구약성경의 다른 곳⁴¹⁾에서도 발견된다. 그런데 구약 정경의 진술과 바오로의 재해석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신명 21,23⁴²⁾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서술하며, 민수 25,4; 2사무 21,6,9은 각각 ‘*주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 나무에 매달아’라고 묘사한다. 하지만 갈라 3,13은 ‘하느님의 저주’나 ‘주님 앞에서’ 같은 표현이 아예 생략되어 있다.⁴³⁾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즉 율법에 따라 ‘저주’로 규정된 이 사건의 책임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으려는 바오로의 신학적 의도에 따른 재해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그는 ‘축복과 저주’라는 전통적 주제의 흐름을 따르며 갈라 3,10-14 이전 단락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을 활용한다. 바오로는 갈라 3,8에서 창세 12,3을 토대로⁴⁴⁾ 성경에 근거한 논증에 착수하는데, 갈라 3,14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축복’에 근거한 논증은 긴장감들을 완화하는 것으로 일 단락된다. 물론 유다교 전통에서 중요시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3,16에서 해석의 결정적 실마리가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⁴⁵⁾ 그러나 3,6-29의 논증 과정 전체를 조망할 때, 3,13은 3,16에 이르기 위한 준비 단계로 분석된다.⁴⁶⁾ 왜냐하면 3,13의 두 요소, 곧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는 몸이 됨’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은 당시 유다교의 전통적 해석과 뚜렷한 불연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축복과 저주’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면, 갈라 3,10-14이 전제하는 바오로의 해석학적 특징은 ‘그리스도론적 해석’이다.

41) 민수 25,4; 신명 21,22-23; 여호 10,26-27; 2사무 21,6-9.

42) 신명 21,23: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43) 이 주제와 관련하여 『타르굼』 나훔 2,13(참조. *Targum of the Minor Prophets*, 138.)과 쿨란 문헌 『나훔 주석서』 5-8(참조. F. 마르티네즈-E. 티그셀라아르, 『사해 문서 2: 4Q156-4Q273』, 강성열 옮김, (과주: 나남, 2008), 79.)을 비교할 수 있다. 구약 정경 본문과 Tg 본문(나훔 2,13)은 ‘나무에 매다는 형벌’과 전혀 상관없지만, 나훔 2,13에 대한 주석인 4QpNah은 ‘나무에 매다는 형벌’에 관해 기술한다. 그런데 『나훔 주석서』에서도 갈라 3,13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저주’나 ‘주님 앞에서’ 같은 표현은 생략되었다.

44) 갈라 3,8: ἐνυλογηθήσονται ἐν σοὶ πάντα τὰ ἔθνη·

창세 12,3(LXX): ἐνυλογηθήσονται ἐν σοὶ πάντα αἱ φυλαὶ τῆς γῆς

45) 갈라 3,16: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뜻하는 “후손들에게”(καὶ τοῖς σπέρμασιν)가 아니라, 한 사람을 뜻하는 “너의 후손에게”(καὶ τῷ σπέρματί σου)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46) Witherington III, *Grace in Galatia*, 235-236.

2.3. 우상 숭배와 죄악

갈라 3,10-14를 관통하는 바오로의 해석학적 관점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라는 고대 유다교 전통의 신학적 주제와 맞닿아 있는가?

신명 27,14-26의 열두 ‘저주’ 목록에서 첫 번째(27,15⁴⁷⁾)는 ‘우상 숭배’ 금령(禁令)과 연관된다. 1사무 15,22-23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명심하는 것’은 ‘율법’ 준수를 뜻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율법과 계약’에 대한 거역, 즉 ‘죄’에 비견(比肩)된다. 한편 느헤 9,29은 ‘율법과 계약’을 거슬렀던 선조들의 모습을 ‘죄’라고 고발한다. 이처럼 ‘율법과 계약’, ‘축복과 저주’라는 주제는 ‘우상 숭배와 죄악’이라는 주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본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구약 전통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죄악’과 결부시키는지 검토해보자. 1열왕 16,26; 토빗 14,6-7; 하바 2,18-19; 지혜 14,27은 ‘우상 숭배’와 ‘죄악’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데, 특히 지혜 14,27에 의하면 ‘우상 숭배’는 모든 ‘악’의 시작이고 원인이며 끝이라고 명확히 기술된다.

축부하는 이들은 그리집 산을 향해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새겨 만든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이나 어떤 형상, 곧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한 곳에 두지 않는 이는 복되다.” 그리고 저주하는 이들은 에발 산을 향해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새겨 만든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이나 어떤 표상, 곧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한 곳에 두는 이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타르굼 차명-요나탄』 신명 27,15)⁴⁸⁾

『타르굼 차명-요나탄』은 구약 정경(신명 27,15)에 몇 가지 요소를 덧붙인다. ‘우상 숭배’는 ‘저주’로 귀결되며, ‘우상 숭배’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축복’과 연결된다. ‘우상 숭배’가 구약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과 계약’에 정반대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우상 숭배’는 곧 ‘죄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한편 레위 18,3.5⁴⁹⁾에서 ‘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47) 신명 27,15: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새겨 만든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 곧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48) 참조 Targum du Pentateuque, IV, 215.217.

49) 레위 18,3.5: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끌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규칙들을 따라서도 안 된다...너희는 내 규칙들과 내 법규들을 지켜야 한다. 그것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하는 것’, ‘그들의 규칙들’(18,3)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이방인들의 행위를 표상(表象)하는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요약된다. 레위 18,5은 ‘우상 숭배’에 대한 처방으로 ‘율법’ 실천을 제한한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죄악’이나 ‘악행’으로 단죄하는 것은 『타르굼 차명-요나탄』에서 보다 명료하게 나타난다.

너희는…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의 악행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된다.…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의 악행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관습들을 따라서도 안 된다(『타르굼 차명-요나탄』 레위 18,3).⁵⁰⁾

레위기 18장은 전반적으로 성(性)에 관련된 문제와 ‘죄악’을 열거하며, ‘율법’을 ‘죄악’의 기준으로 삼는다. 레위기 18장과 더불어 지혜 14,12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하느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성적인 ‘죄’인 간음, 즉 삶의 타락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여러 구약 본문⁵¹⁾은 ‘우상 숭배’를 ‘죄악’으로 단죄하며, 간음을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한 전통적 표상으로 활용한다.

그분[하느님]은 그것들[율법과 감추어진 것들]을 그들[이스라엘] 앞에 여시었다. 그들은 물이 풍부한 우물을 팠다. 이 물을 업신여기는 이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죄와 부정한 길에 의해 자신을 더럽혔다(『다마스쿠스 문서』 3,16-17).⁵²⁾

『다마스쿠스 문서』에서 ‘우물’은 ‘율법’을 가리킨다고 가정하며 이 우의적 해석을 풀어보자.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들이 ‘율법’을 업신여긴 결과 ‘인간의 죄와 부정한 길’, 곧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스스로를 더럽혔다는 것이다. 한편 『다마스쿠스 문서』보다 『공동체 규칙서』에서 ‘계약’과 ‘저주’, ‘우상 숭배’와 ‘죄악’ 사이의 관계가 더 명확히 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음에 우상을 섬기면서 계약 안으로 들어오는 이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악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을 그 앞에 두어 그것 때문에 그는 돌아서게 된다…이 계약의 저주가 그에게 내리고 하느님이 그를 불행하게 하시고 그가 빛의 아들들로부터 제거될지이다. 왜냐하

50) 참조 Targum du Pentateuque, II, 433.

51) 참조 시편 50,16-19; 예레 3,8-9; 5,7; 7,9; 9,1; 13,27; 23,10.14; 예제 6,9; 16,36-38; 23,27.45.49; 호세 2,4; 3,1; 4,1-2.14; 말라 3,5.

52) 참조. “Écrit de Damas”, 148; 재인용. 송창현, 「『다마스쿠스 문서』2: CD I 1-IV 12 본문 번역과 주석」, 『말씀터』, 132 (2020,9-10월), 15.

면 그는 자신을 자신의 *우상*과 *죄악*의 함정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다.”(『공동체 규칙서』 2,11-12.16-17)⁵³⁾

정리하면, 고대 유다교 전통의 신학적 흐름에서 하느님께 대한 참 신앙의 표현인 ‘율법’ 실천과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것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다. 그러면 이 신학적 주제가 바오로의 해석학에 어떤 방식으로 영감을 불어 넣었을까?

갈라 3,6-9에서 바오로는 ‘믿음’에 관한 논증을 시작하는데, 이에 대한 논거는 *οἱ ἐκ πίστεως* (3,7.9)와 *ἐκ πίστεως*(3,8)이다. 반면 *ὅσοι...ἐξ ἔργων νόμου*(3,10)는 새롭게 전개되는 논증의 첫 번째 표현이다. 그의 논증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과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서로 반대편에서 걷는 등장인물처럼 의인화되는데,⁵⁴⁾ *ὁ δὲ νόμος οὐκ ἔστιν ἐκ πίστεως* (3,12)라는 진술이 그 근거이다. 끝으로 *ἐκ πίστεως*(3,11)와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3,14)라는 표현으로 논증은 종결된다.

사실 본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⁵⁵⁾ 율법 실천과는 무관하다.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3,10)은 ‘율법과 계약’이라는 유다교 전통에 속하므로 유다인·유다계 그리스도인에게나 어울릴만한 호칭이다. 만약 갈라티아의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⁵⁶⁾ 이는 명백한 모순이다. 첫째,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3,11) 때문이다. 둘째, 그들이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가 되어 속량한(3,13) 십자가 구원사건의 무효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들은 이미 약속된 성령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기(3,14) 때문이다. 구약 전통에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인 ‘율법’ 실천이 ‘우상 숭배와 죄악’과 서로 대척점에 놓였던 것처럼, 갈라티아의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자세인 ‘믿음’은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것과 극명히 대조된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부적합하고 모순되며 반대편에 놓여 있는 구원의 길, 즉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한 의로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유비(類比)적 의미에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빗낼 수 있다.

53) 참조. “Règle de la Communauté”, 12-13; 재인용. 송창현, 「쿰란의 ‘공동체 규칙서’ 3」, 7.

54) 참조. 김상우, 「갈라 3,6-29의 설화적 요소들」, 『가톨릭신학』, 38(2021, 여름), 93-118; Légasse, *Galates*, 177-179; Lémonon, *Galates*, 124.

55) 참조. 갈라 4,8-9.

56) 참조. 갈라 3,1-5; 4,21; 5,2.4.

2.4. 땅과 상속 재산

갈라 3,10-14는 ‘땅’을 뜻하는 γῆ와 ‘상속’과 관련된 κληρός κληρουμίά κληρονόμος κληρουμέω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를 근거로 연구 본문이 ‘땅과 상속 재산’이라는 유다교의 전통적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단언해야 하는가?

우선 구약 정경은 ‘땅’에 관해 수차례 언급하기 때문에, ‘율법과 계약’, ‘축복과 저주’, ‘우상 숭배와 죄악’, ‘상속 재산’이라는 주제와의 연관성 안으로 연구 범위를 좁혀보자. 첫째, ‘땅’ 개념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본문은 즈카 13,2; 이사 2,6-8이다. 즈카 13,2의 ‘이 땅에서’와 이사 2,6-8의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을 가리킨다. 이처럼 첫 번째 ‘땅’ 개념은 지리적·물리적 의미를 지닌다. 둘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⁵⁷⁾이라는 표현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과 ‘축복’의 실현, 사나이 ‘계약’의 결과, 충실한 ‘율법’ 준수에 대한 보상 등의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다. 따라서 두 번째 ‘땅’ 개념은 ‘율법과 계약’, ‘축복과 약속’과 결합 된다. 셋째, 신명 21,23⁵⁸⁾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린 이는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이 발견된다. 이처럼 ‘땅’ 개념에 ‘저주’와 ‘상속 재산’의 요소가 덧붙여진다.

그의 잘못들 때문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 사람을 잡아기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해질녘 그를 묻어 피조물들이 그를 모욕하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으로 주실 땅을 저주받은 이들의 시체들로 더럽히지 마라(『타르굼 차명-요나단』 신명 21,23).⁵⁹⁾

한편 타르굼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됨’, ‘피조물들이 나무에 매달렸던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해야 함’, ‘하느님께서 상속으로 주실 땅을 저주받은 이들의 시체로 더럽혀서는 안 됨’ 등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다.

57) 탈출 3,8,17; 13,5; 33,3; 레위 20,24; 민수 14,8; 16,13-14; 신명 6,3; 11,9; 26,9; 27,3; 31,20; 여호 5,6; 집회 46,8; 바룩 1,20; 예레 11,5; 예제 20,6.15.

58) 신명 21,23: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편 바오로는 갈라 3,13에서 신명 21,23의 앞부분을 차용한다.

59) 참조. *Targum du Pentateuque*, IV, 177.

만일 어떤 이가…동족에게 악을 행한다면, 너희는 그를 나무에 매달 것이고 그는 죽을 것이다. 둘이나 셋의 증언에 근거하여…그들은 그를 나무에 매달아라…만일 어떤 이가 중죄를 지어 이방 민족 가운데 숨거나 동족과 이스라엘의 자손을 저주한다면, 너희는 그 역시 나무에 매달 것이고 그는 죽을 것이다. 시체를 밤새 나무에 매달린 채 두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그 날에 시체를 매장해라. 나무에 매달린 자들은 *하느님과 사람에게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상속으로 준 땅을* 더럽히지 마라(『성전 두루마리』 64,6-13).⁶⁰⁾

『성전 두루마리』는 ‘땅’ 개념에 ‘저주’, ‘죄악’, ‘상속’, ‘증언’ 등의 요소를 추가한다. 요컨대, 고대 유다교 전통에서 ‘땅’ 개념은 새로운 신학적 요소를 첨가하며 발전했다. 그러면 갈라 3,10-14은 ‘땅과 상속 재산’이라는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가?

바오로는 갈라 3,12에서 레위 18,5 본문을 차용한다.⁶¹⁾ 레위 18,5 히브리어 본문에서 사용된 *אֲרָצָה*가 칠십인역에서 *ζῶω*로 번역되었고, 갈라 3,12도 *ζῶω*를 그대로 인용한다. 갈라 3,12을 특징짓는 바오로의 해석학에서 이른바 ‘삶의 문제’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⁶²⁾ 다시 말해, 갈라티아인들에게 ‘율법과 계약’, ‘율법과 믿음’은 삶의 한가운데 던져진 중요한 화두이다.

사람이 그것[율법]을 실천하면 그것들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 것이며, 그의 뭇 의인들과 함께…(『타르굼 차명-요나탄』 레위 18,5).⁶³⁾

레위 18,5을 재해석하는 『타르굼 차명-요나탄』은 ‘율법’ 실천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종말론적으로 연결하며, ‘율법’에 충실한 이들에게 주어질 ‘상속 재산’을 ‘의인들과 함께함’으로 규정한다. 한편 『공동체 규칙서』는 ‘율법’에 충실한 진리의 이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보상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나열한다.

…온갖 역겨운 우상을 미워하는 놀라운 정결,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겸손한 행동, 지식의 신비

60) 참조 F. 마르티네즈-E. 티그셀라르, 『사해 문서 4: 4Q4492~11Q431』, 강성열 옮김, (파주: 나남, 2008), 332-333.

61) 갈라 3,12: ὁ ποιῆρας αὐτὰ ζήσεται ἐν αὐτοῖς
레위 18,5: ὁ ποιῆρας ἀθροῦς ζήσεται ἐν αὐτοῖς (LXX); (BHS) אֲרָצָה יִחְיֶה בָּהֶן אֲרָצָה יִחְיֶה בָּהֶן

62) 참조 Moo, *Galatians*, 201.206; Légasse, *Galates*, 231; De Boer, *Galatians*, 205-208.

63) 참조 *Targum du Pentateuque*, II, 435.

로운 진리에 대한 신중함. 이것이 세상의 모든 진리의 아들들을 위한 영의 권고들이다.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징벌은 치유, 긴 날들의 풍부한 평화, 모든 영구한 축복과 함께 풍요로움, 끝없는 생명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빛 속에 존귀의 옷과 함께 영광의 화관일 것이다 (『공동체 규칙서』 4,5-8).⁶⁴⁾

그런데 『공동체 규칙서』의 ‘우상을 미워하는 정결’, ‘영구한 축복’, ‘영원한 기쁨’, ‘영광의 화관’과 같은 보상, 곧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요소가 갈라 3,11-12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바오로의 해석학적 논증 안에 ‘상속 재산’과 관련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주장은 연구 본문 속 다른 구절들을 통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갈라 3,11은 하바 2,4 본문에 대한 차용(“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⁶⁵⁾으로 분석되는데, 갈라 3,12처럼 3,11에서도 ζάω가 사용되며 δικαίω, δίκαιος와 πίστις가 함께 등장한다.

보라, 악인들은 이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은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의인들은 이 모든 것의 정
의 진리에 따라 살 것이다(『타르굼』 하바 2,2,4).⁶⁶⁾
정의의 스승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고난으로 인해 하느님께서 심판의 집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하바쿱 주석서』 8,2-3).⁶⁷⁾

『타르굼』 하바 2,2,4은 ‘정의/ 진리’를, 『하바쿱 주석서』 8,2-3은 ‘믿음과 고난’을 의인들이 살아갈 종말론적 삶의 원동력으로 소개한다. 반면 갈라 3,11은 ‘믿음’(ἐκ πίστεως)을 그 자리에 놓는다. 이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3,14은 ‘아브라함의 축복’(ἡ εὐλογία τοῦ Ἀβραά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성령’(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πνεύματος)을 ‘믿음’(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으로 받게 되었다고 선포한다. 따라서 바오로는 ‘땅과 상속 재산’을 ‘약속된 성령’으로, 그것을 받는 방법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종말론적 관점을 견지하며 재해석한다.⁶⁸⁾ 이처럼 3,10-14에서 그는 ‘땅과 상속 재산’이라는 전통적 주제를 종말론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연속

64) 참조 “Règle de la Communauté”, 18-19; 재인용. 송창현, 「콰란의 ‘공동체 규칙서’5: 본문 번역과 주석」, 『말씀터』 55(2007, 11-12월), 7-8.

65) 갈라 3,11: ὁ δὲ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 ζήσεται.

하바 2,4: ὁ δὲ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ώς μου ζήσεται (LXX); (BHS) הַיָּהוָה יְהוָה אֱלֹהֵינוּ

66) 참조 Legrand, “Son interprétation concerne”, 32-33; *Targum of the Minor Prophets*, 150-151.

67) 참조 Legrand, “Son interprétation concerne”, 18.

68) Moo, *Galatians*, 216; Keener, *Galatians*, 142: “...땅의 요소[‘땅’ 개념]가 이제 종말론적 유산 속에 포함되지만 바오로는 이 [‘땅’] 개념을 버리지 않는다.”

성을, 반면 ‘성령’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같은 새로운 요소를 삽입한다는 점에서 불연속성을 고수한다. 한 마디로, 고대 유다교 전통과 바오로의 논증 사이의 명확한 불연속성은 ‘그리스도론적 해석’이다.

3. 갈라 3,10-14의 논증 과정에 적용

고대 유다교 전통에 따른 주제별 연구 결과를 갈라 3,10-14에 적용해보자.

첫 번째 적용은 ‘율법과 계약’과 관련된다. ‘율법’(νόμος)⁶⁹⁾에 관한 고대 유다교 전통에서 도출했던 결론은 ‘율법주의적 해석’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할례를 받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며 율법을 실천해야 한다⁷⁰⁾는 의로움의 길은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1,7: οἱ παράσσωτες ὑμᾶς καὶ θέλοντες μεταστρέψαι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οῦ Χριστοῦ), ‘거짓 형제들’(2,4: ψευδοἰσχυροί),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자’(5,10: ὁ παράσγων ὑμᾶς),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5,12: οἱ ἀκιστατοῦντες ὑμᾶς), ‘겉으로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6,12: ὅσοι θέλουσιν εἰσπρασπῆσαι ἐν σαρκί), ‘할례를 받은 이들’(6,13: οἱ περιτεμνόμενοι), ‘여러분의 몸에 한 일을 자랑하려는’ 이들(6,13: ἐν τῇ ὑμετέρᾳ σαρκὶ καυχώμενοι), 곧 바오로의 적대자들이 갈라티아인들에게 강권(強勸)했던 길로 추정된다.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3,10)로 표상되는 그들은 모세에게 상당한 권위를 부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율법의 존재 이유와 구원 역사에서 율법에 부여된 제한적 기능과 일시적 역할에 대한 바오로의 논증(3,15-25)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아브라함(3,6)⁷¹⁾으로 대변되는 ‘믿음’⁷²⁾으로 사는 이들’(3,7,9)은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괄한다.⁷³⁾ 이는 바오로의 ‘그리스도론적 해

69) ‘율법’으로 번역되는 νόμος 개념은 그 자체로 방대한 연구를 요구하므로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갈라티아서와 제1 바오로 서간, 그밖에 고대 유다교 전통에서 사용된 νόμος의 다양한 용례에 관하여: 김상우, 「갈라 4,21의 νόμος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신학전망』, 217(2022, 여름), 2-33.

70) 갈라 4,10; 5,2; 6,12.

71) 한편 바오로는 로마 4,1-25에서도 믿음의 인간,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며 성경에 근거한 논증을 펼치는데, 갈라 3,6-29의 논증과 조금 다른 해석학적 특징들이 발견된다.

72) 갈라티아서에서 πίστις는 특별히 ‘율법에 따른 행위’(2,16: ἐξ ἔργων νόμου)와 대척점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2,16: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을 암시한다. 그런데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에서 Χριστοῦ를 주어진 속격(‘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는 목적어적 속격(‘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거에 관하여: Moo, *Galatians*, 206-207; Légasse, *Galates*, 180-185.

73) Moo, *Galatians*, 211; Lémonon, *Galates*, 122.

석’(3,26-27)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누구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입었으며’(3,27: Χριστὸν ἐκείδυσσασθε)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을 걷는다.

한편 ‘계약’이나 ‘유언’(3,15)으로 번역되는 διαθήκη는 제1 바오로 서간에서 여러 번⁷⁴⁾ 등장한다. 비록 연구 본문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하가르와 사라로 표상되는 옛 계약과 새 계약에 관한 우의적 해석(4,21-31⁷⁵⁾)에서 διαθήκη는 핵심 용어로 사용된다. ‘율법’ 대(對) ‘믿음’, ‘율법’ 대 ‘그리스도’, ‘육’(肉) 대 ‘성령’으로 도식화되는 4,21-31의 논증이 편지 전체의 신학적 쟁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오로는 ‘율법과 계약’이라는 전통적 주제와 ‘율법주의적 해석’을 전제하는 한편, 3,10-14의 논증 과정에서 ‘그리스도론적 해석’을 강조함으로써 갈라티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초대한다.

바오로의 논증 과정에 영감을 주었을 두 번째 신학적 주제는 ‘축복과 저주’이다. ‘저주받은’이라는 뜻의 ἐπικατάρατος는 신약성경에서 갈라 3,10.13에만 등장한다. ‘저주’라는 뜻의 κατάρα도 여기서만 발견되는데, ‘저주’의 대상이 각각 다르게 규정된다. 3,10의 경우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이 ‘저주’의 대상이다. 율법·할례안식일 규정 준수와 ‘율법주의적 해석’에 편향된 이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논증으로, 바오로는 신명 27,26에서 논증의 근거를 찾는다. 반면 갈라 3,13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ὑπὲρ ἡμῶν)⁷⁶⁾ 스스로 ‘저주가 됨으로써’(γενόμενος·κατάρα)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ἐκ τῆς κατάρας τοῦ νόμου) 구원했다는 ‘그리스도론적 해석’이 제시된다. 3,13에서 ‘저주’의 대상은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스스로 ‘저주’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바오로는 신명 21,23 본문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이 해석은 ‘구약 예언의 성취’(갈라 3,13: ὅτι γέγραπται)를 기초로 하는 예형론(typologia)이 적용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율법이 이루지 못했던 구원 업적을 완성했다(3,24-25)는 ‘그리스도론적 해석’과 직결(直結)된다. 게다가 ‘저주’라는 뜻의 ἀνάθεμα⁷⁷⁾가 사용된 1,8.9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저

74) 갈라 3,15.17; 4,24; 로마 9,4; 11,27; 1코린 11,25; 2코린 3,6.14.

75) 갈라 4,21-31에 적용할 수 있는 성서 연구 방법론에 관하여: 김상우, 「갈라 4,21-31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학과 철학』, 35(2019, 가을), 101-133.

76) 갈라 3,13의 ὑπὲρ ἡμῶν에 포함되는 그룹에 관하여: Moo, *Galatians*, 211-2012; Witherington III, *Grace in Galatia*, 236-238; Légasse, *Galates*, 233-234.237; Lémonon, *Galates*, 122.

77) 제1 바오로 서간에서 ἀνάθεμα가 사용된 구절: 갈라 1,8.9; 로마 9,3; 12,14; 1코린 12,3; 16,22.

주'의 대상(ἀνάθεμα ἔστω)으로 두 차례나 선고된다. 실제로 수신자들이 편지를 읽을 때 첫인상을 결정하는 초반부에, 통상적으로 감사 인사(εὐχαριστέω)⁷⁸⁾가 놓이는 위치에 격양된 어조(1,6: Θαμύζω)의 '저주' 발언이 삽입된 것은 바오로의 적대자들이 갈라티아의 신앙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현실 상황을 반영한다.

한편 '저주'의 반의어이며 '축복'이라는 뜻의 εὐλογία는 3,14에, '축복하다'라는 뜻의 εὐλογέω는 3,9에 등장한다.⁷⁹⁾ 3,9에서 '축복'의 대상은 '믿음으로 사는 이들'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데, 이는 3,14에 의해 명확해진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3,14) 되었다는 것이다. '믿음으로'(3,14: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라는 표현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리킨다. 이처럼 '축복과 저주'라는 유다교의 전통적 주제는 바오로가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각각 '저주'와 '축복'으로 특징지으며, '그리스도론적 해석'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 장치로 활용되었다. 갈라티아의 수신자들은 결국 '저주'와 '축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셋째, '우상 숭배와 죄악'이라는 주제는 바오로의 '그리스도론적 해석'을 보강한다. 연구 본문 안에서 이 주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갈라티아서 전체를 면밀하게 검토하면 '우상 숭배와 죄악'은 바오로의 여러 논증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앞서 4,21-31로부터 도출했던 도식 가운데 '율법' 대 '그리스도', '육' 대 '성령'을 참조해보자. 이 편지의 특징인 '그리스도론적 해석'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2,20: ζῇ...ἐν ἐμοὶ Χριστός),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3,28: ὑμεῖς εἷς...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면'(3,29: εἰ...ὑμεῖς Χριστοῦ),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출 때까지'(4,19: μέχρις οὗ μορφωθῇ Χριστὸς ἐν ὑμῖν),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5,24: οἱ...τοῦ Χριστοῦ)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육' 대 '성령'의 도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바오로는 '육의 행실들'(5,19: τὰ ἔργα τῆς σαρκός)을 언급한 뒤 연역법(演繹法)으로

78) 제1 바오로 서간에서 편지 초반부에 εὐχαριστέω로 감사 인사가 표현된 구절: 로마 1,8; 1코린 1,4; 2코린 1,11; 필리 1,3; 1테살 1,2; 필레 1,4.

79) 이 어휘들이 제1 바오로 서간에서 사용된 구절은 다음과 같다.

εὐλογέω: 갈라 3,9; 로마 12,14*2; 1코린 4,12; 10,16.

εὐλογία: 갈라 3,14; 로마 15,29; 16,18; 1코린 10,16; 2코린 9,5*2.6*2.

다양한 요소⁸⁰⁾를 열거하는데, 이 목록 안에 ‘우상 숭배’(5,20: εἰδωλολατρία)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육의 행실들’ 목록 속 다른 요소들은 ‘죄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고(3,10) ‘율법주의적 해석’을 지지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들은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한 의로움의 길’을 걸으며 ‘우상 숭배와 죄악’(5,19-21), 즉 ‘육의 행실들’을 살아간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편 ‘육의 행실들’과 대척점에 있는 ‘성령의 열매’(5,22: ὁ δὲ καρπὸ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역시 언급되며 이어서 관련 요소들이 소개된다. 그런데 3,2.5.14; 4,6의 내용을 종합할 때 갈라티아인들이 세례 때 받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5,5.16.25에 의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5,25: ζῶμεν πνεύματι)과 동일시된다. 요컨대, ‘믿음으로 사는 이들’(3,7.9)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 갈라티아인들에게 ‘축복’(3,8.9.14)과 의로움(3,11: δικαιοῦται), 해방과 구원(3,13: ἐξηγόρασει)이 주어졌다는 바오로의 일관성 있는 논리를 연구 본문에 적용한다.

네 번째 논거는 ‘땅과 상속 재산’이라는 주제이다. 이 주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3,10-14과는 다르게 갈라티아서 안에서 해당 주제는 반복적으로 활용된다. 어휘만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상속자’(κληρονόμος)는 3,29; 4,1.7에, ‘상속 재산’(κληρονομία)은 3,18에, ‘상속하다’(κληρονομίω)는 4,30; 5,21에 등장하기 때문이다.⁸¹⁾ 본고에서 이 주제에 관한 제2 성전 시대 유대교 문헌들로부터 도출했던 결론은 기존의 ‘땅과 상속 재산’ 개념에 새 요소를 추가하는 해석 전통이었다. 그러면 바오로는 편지에서 어떤 요소를 추가하는가?

바오로의 ‘그리스도론적 해석’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3,26: υἱοὶ θεοῦ...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에 따른 상속자’(3,29: τοῦ Ἀβραάμ σπέρμα/ κατ’ ἐπαγγελίαν κληρονόμοι), ‘하느님께서 세워 주신 상속자’(4,7: κληρονόμος διὰ θεοῦ), ‘이사야와 같이 약속의 자녀’(4,28: κατὰ Ἰσαΐα ἐπαγγελίας τέκνα),

80) 갈라 5,19-21: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εἰδωλολατρία),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81) 갈라티아서뿐 아니라 제1 바오로 서간에서 ‘상속자’, ‘상속 재산’, ‘상속하다’라는 뜻의 어휘들이 사용된 구절은 다음과 같다.

κληρονόμος: 갈라 3,29; 4,1.7; 로마 4,13.14; 8,17⁷².

κληρονομία: 갈라 3,18.

κληρονομίω: 갈라 4,30; 5,21; 1코린 6,9.10; 15,50⁷².

‘자유의 몸인 부인의 자녀’(4,31: τέκνα...τῆς ἐλευθέρου)와 같이 신앙인의 새로운 신원·정체성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을 걷는 갈라티아인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부여되었다. 한편 ‘땅’ 개념과 관련된 어휘 중 ‘수확하다’, ‘추수하다’라는 뜻의 θερίζω가 6,7,8⁸².9에, ‘씨를 뿌리다’, ‘흔어지게 하다’라는 뜻의 σπείρω가 6,7,8⁸²에 등장한다.⁸²⁾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을 걸으며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6,8:

ὁ...σπείρων εἰς τὸ πνεῦμα)인 편지 수신자들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얻게 될 수확의 결실은 갈라티아서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⁸³⁾ ‘자유’⁸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과 ‘약속된 성령’(3,14: ἡ εὐλογία τοῦ Ἀβραάμ/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πνεύματος),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4,26: ἡ...ἡ πόλις Ἱερουσαλὴμ), ‘하느님의 나라’(5,21: βασιλείαν θεοῦ), ‘영원한 생명’(6,8: ζωὴν αἰώνιον), ‘새 창조’(6,15: καινὴ κτίσις)⁸⁵⁾ 등의 새로운 요소와 함께 바오로는 전통적 ‘땅과 상속 재산’ 개념을 그리스도론적으로 재해석한다.

마침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을 걸으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5,25), 즉 갈라티아인들에게 은총으로 거저 주어진 ‘상속 재산’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5,6: πίστις δι’ ἀγάπης ἐνεργουμένη)을 통해 꽃피워야 한다. 이처럼 바오로는 갈라티아서를 통해 이방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성원 상호 간의 형제적 사랑, 회생과 봉사(5,14; 6,20), 즉 ‘그리스도의 율법’(6,2)을 신앙 공동체 안에 구현함으로써, ‘하느님 나라’(5,21)의 참된 ‘상속자’(3,29; 4,7)로 살아가도록 초대한다.

나가는 말

본고는 바오로의 해석학적 자율상·유연성·독창성을 전제하며, 갈라 3,10-14 안에 고대 유다교 전통에 따른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적용하는 것을 방법론으로 삼았다. ‘율법과 계

82) 제1 바오로 서간에서 θερίζω가 사용된 구절: 갈라 6,7,8⁸².9; 1코린 9,11; 2코린 9,6⁸².

또한 σπείρω가 사용된 구절: 갈라 6,7,8⁸²; 1코린 9,11; 15,36.37⁸².42.43⁸².44; 2코린 9,6⁸².10.

83) 종말론적 관점에서 갈라티아인들이 얻게 될 수확의 결실은 그리스어 본문 안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동사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바오로의 해석학 안에 ‘이미’(already)와 ‘아직 아니’(not yet)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이 암시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84) ‘자유’라는 뜻의 ἐλευθερία는 2,4; 5,1; 5,13⁸²에서, ‘자유로운’이라는 뜻의 ἐλεύθερος는 3,28; 4,22.23.26.30.31에서,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의 ἐλευθερώω는 5,1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85) 갈라 6,15와 동일한 표현인 καινὴ κτίσις는 2코린 5,17에도 등장한다.

약, ‘축복과 저주’, ‘우상 숭배와 죄악’, ‘땅과 상속 재산’이라는 전통적 주제들의 흐름에 따라, 구약성경을 포함하는 제2 성전 시대 유다교 문헌들의 증언과 바오로의 논증을 면밀하게 비교·검토했다. 특별히 연구 본문에서 활용된 레위 18,5; 신명 21,23; 27,26; 하바 2,4 본문들 사이의 관계와 이 본문에 관한 바오로의 해석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어떻게 유다교 전통의 ‘율법주의적 해석’이 ‘그리스도론적 해석’으로 나아가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세 가지로 귀결되었다. 첫째, 고대 유다교 전통과 바오로의 논증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둘째, 갈라티아 교회 공동체를 설득하기 위한 바오로의 수사학적 장치와 논증 과정을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셋째, 편지 수신자들이 직면하고 있던 현실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갈라티아서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의화(義化) 논쟁만을 위해 집필된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목자·복음 선포자인 이방인의 사도가 ‘어머니’의 마음으로(갈라 4,19) 써 내려간 편지이다. 바오로라는 인물이 ‘진공관’ 속에서 논증을 펼쳤던 것이 아니라, 특정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 맺음 속에서 자신이 향유(享有)하고 있던 모든 신앙의 유산을 총동원하여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편지를 집필했다는 사실을 본고를 통해 입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소고(小考)는 추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갈라 3,15-25을 고대 유다교 전통에 비추어 비교·분석하거나 갈라 4,21-31에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를 통해, 갈라티아서에 대한 현대 독자들의 이해가 증진되며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적절한 답변과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마르티네즈, F.(Martinez F.):티그셀라아르, E.(Tigchelaar E.), 『사해 문서 2: 4Q156~4Q273』, 『사해 문서 4: 4Q4492~11Q431』,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강성열 옮김, 파주: 나남, 2008.
- 송창현, 「쿰란의 ‘공동체 규칙서’2: 본문 번역과 주석」, 『말씀터』, 52(2007, 5-6월), 7-9.
- _____, 「쿰란의 ‘공동체 규칙서’3: 본문 번역과 주석」, 『말씀터』, 53(2007, 7-8월), 7-9.
- _____, 「쿰란의 ‘공동체 규칙서’5: 본문 번역과 주석」, 『말씀터』, 55(2007, 11-12월), 6-9.
- _____, 「다마스쿠스 문서’2: CD I 1-IV 12 본문 번역과 주석」, 『말씀터』, 132(2020, 9-10월), 10-15.
- Barclay, J.M.G., “Mirror-Reading a Polemical Letter: Galatians as a Test Cas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1(1987), 73-93.
- _____, *Obedying the Truth: A Study of Paul’s Ethics in Galatians*, Edinburgh: T&T Clark, 1988.
- De Boer, M.C., *Galatian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 “Écrit de Damas”, trans. A. Dupont-Sommer, in A. Dupont-Sommer - M. Philonenko, ed., *La Bible. Écrits intertestamentaires*, Paris: Gallimard, 1987, 133-183.
- Gordon, R.P., *Studies in the Targum to the Twelve Prophets: From Nahum to Malachi*, Leiden: E.J. Brill, 1994.
- Keener, C.S., *Galati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 Kwon, Y.-G., *Eschatology in Galatians: Rethinking Paul’s Response to the Crisis in Galatia*, Tübingen: J.C.B. Mohr, 2004.
- _____, 「Reconsidering Mirror-Reading and Galatians」, 『신약연구』, 14(2015, 2), 244-270.
- Légasse, S., *L’épître de Paul aux Galates*, Paris: Cerf, 2000.
- Legrand, Th., ““Son interprétation concerne tous ceux qui pratiquent la Torah...”: Relecture et interprétation d’Habacuc 2,4 dans le Pesher d’Habacuc (1QpHab VII-VIII) et le Targum d’Habacuc”, in 《Le juste vivra de sa foi》 (*Habacuc 2,4*), ed., M. Arnold - G. Dahan - A. Noblesse-Rocher, Paris: Cerf, 2012, 11-40.

- Lémonon, J.-P., *L'épître aux Galates*, Paris: Cerf, 2008.
- Longenecker, R.N., *Galatians*, Dallas: Word Book Publisher, 1990.
- Martyn, J.L., *Galatians*,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7.
- Moo, D.J., *Galatia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 Rastoin, M., *Tarse et Jérusalem: La double culture de l'Apôtre Paul en Ga 3,6-4,7*, Rome: Institut Biblique Pontifical, 2003.
- “Règle de la Communauté”, trans. A. Dupont-Sommer, in A. Dupont-Sommer - M. Philonenko, ed., *La Bible. Écrits intertestamentaires*, Paris: Gallimard, 1987, 3-46.
- The Targum of the Minor Prophets*, The Aramaic Bible the Targum 14, trans. K.J. Cathcart - R.P. Gordon, Edinburgh: T&T Clark, 1989.
- Targum du Pentateuque*, II, IV, SC 256, 271, trans. R. Le Déaut, Paris: Cerf, 1979, 1980.
- Witherington III, B., *Grace in Galatia: A Commentary on Paul's Letter to the Galatians*, Grand Rapids: W.B. Eerdmans, 1998.

고대 유다교 전통에 비추어 본 갈라 3,10-14

김상우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바오로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고대 유다교 전통 속에 깊이 뿌리내리며 살았던 바리사이였다. 그러므로 회심 후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들 안에서 그는 구약성경 본문들을 활용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유다교 전통의 유산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은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한 의로움의 길’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른 의로움의 길’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던 갈라티아인들에게 쓴 편지를 연구 본문으로 삼는다. 특별히 갈라 3,10-14에서 활용된 레위 18,5; 신명 21,23; 27,26; 하바 2,4 본문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한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바오로의 해석학적 고찰이 ‘율법과 계약’, ‘축복과 저주’, ‘우상 숭배와 죄악’, ‘땅과 상속 재산’이라는 유다교의 전통적 신학 주제들의 흐름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는지 밝힌다.

본고는 고대 유다교 전통과 바오로의 논증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갈라티아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의 수사학과 논증 과정, 수신자들이 미주하고 있던 교회 공동체의 상황 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된다.

주제어: 갈라티아서, 고대 유다교 전통, 축복, 저주, 상속 재산

Gal 3:10–14 in the Light of Ancient Jewish Tradition

Kim, Sang-Woo

Called the “Apostle of the Gentiles”, Paul was a Pharisee who lived deeply rooted in the Ancient Jewish Tradition until he met the Resurrected Christ. Therefore, it is presumed that in the Letters he wrote to Gentile Christians after his conversion, he not only used the texts of the Old Testament, but also was inspired by the heritage of various Jewish Traditions.

This paper concerns a Letter written to the Galatians who were hesitant between ‘the way of righteousness through works of the Law’ and ‘the way of righteousness through faith in Christ’. In particular, we focus on relationship between Lev 18:5; Deut 21:23; 27:26; Hab 2:4 utilized in Gal 3:10-14. Centering on these texts, it reveals how Paul’s Hermeneutics correlates with the flow of traditional theological themes of Judaism, such as ‘Law and Contract’, ‘Blessing and Curse’, ‘Idolatry and Sin’, and ‘Land and Inheritance’.

This paper ends up clearly revealing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the Early Jewish Tradition and Paul’s argument, his rhetoric and argumentation process to persuade the Galatians; and the situation of the church that Galatians were facing.

Key Words: Galatians, Ancient Jewish Tradition, Blessing, Curse, Inheritance

논문 투고일	2023년 3월 5일
논문 수정일	2023년 3월 29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3년 3월 27일
